

생산자, 정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견이 없다

—편집부—



본회는 취임 6개월을 맞은 김동태 축산국장을 지난 7월 29일 초청하여 본회 임원을 비롯한 양계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준구 회장은 현재 국제개방화시대를 맞아 업계전체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불황을 당하여 전망이 불투명해져 대외적으로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라는 인사와 더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의 문제점까지 제기하여 당면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축산국장은 양계업계의 지도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간담회는 본회 현황 보고에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형식 없이 오봉국(본회 고문)박사의 사회 진행되었는데 주로 일문일답으로 이어졌다.

서울·경기양계 협동조합에서 추진중인 난가 공공장 인수 지원자금이 결정이 났음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란산업 발전을 위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자 자금지원 결정이 늦어진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서 부도난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지원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무협의 후 곧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비축수급 조절자금을 대폭 더 늘려야 닭고기와 계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유통자금도 지금 보다도 투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하자 비축자금을 늘리는 것을 약속하는데 보관이 어려운 산물은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계열주체가 육계의 60% 이상을 생산해야 바람직함으로 계열화사업의 확대지원과 생산유통 등 취약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하며 개인 농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규모에 관계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정부에서는 이 사업계획만을 심의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소규모 계열주체라도 사업특성에 맞게 육성을 해나갈 방침인데 자문을 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계산물의 수출·입시 외국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자 계란, 닭고기의 수입을 현재 추정키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말하고 이를 위해 양계산물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관세부담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관세부과로 수입을 억제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관세화 장치가 제대로 되면 양계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협회나 관련업체에서도 해외 견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보파악을 위해 축협 조사부에 일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전남반도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양계단지를 조성코자 할 때 정부용자금이 너

무 적은데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어떤 복안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양계단지조성 지원자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각 도에서 직접 농가 사정을 잘 파악해서 농립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추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담보완화 등 행정규제완화는 특별법을 완화한다는 것은 전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감사 때 자금의 용도에 대해 이해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으나 업계를 잘 파악해서 지원에 신경을 써나가겠으며 생산자들이 무엇 보다 멩쳐서 판로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고, 식품위생법 이원화는 양쪽부서끼리 협의중에 있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외국인 채용문제에 대하여는 전업규모가 우선이라 생각되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나 미래를 생각해서 외국인 노동력 흡수 보다는 우리끼리 자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 이용에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건설부와 협의해서 기본에서 5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간담회에 참석한 양계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의를 한 사람은 류종래(대구·경북양계조합장), 강석부(본회 부회장), 배성황(본회 이사), 윤석현(본회 전남지부장), 김덕현(본회 이사), 이재식(본회 이사), 박승봉(본회 부회장), 이상정(본회 이사), 최준구(본회 회장), 신흥종(본회 명예회장), 유병현(본회 이사), 한재권(본회 이사) 등이었다. **양계**